

웃둥 보살 **웃둥** 거사 <51>

구성 : 김흥민



말라 버린 소젖

〈백유경(百喻經)〉

옛날 어떤 사람이 하루는 손님을 청하여 소의 젖을 모아 대접하려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날마다 미리 소젖을 짜 두면 소젖은 점점 많아져 돌 곳이라도 없을 것이다. 또한 맛도 변해 못 쓰게 될 것이다. 그보다는 소젖을 소 뱃속에 그대로 모아 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한꺼번에 짜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는 곧 어미 소와 새끼소를 따로 떼어 두었다. 한 달이 지난 후 손님을 초대했다. 잔치를 베풀고 소를 끌고 와서 젖을 짜려고 했다. 그런데 그 소의 젖은 어찌된 일인지 말라 없어져 버렸다. 그러자 손님들은 성을 내거나 혹은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도 이와 같아서, '내게 재물이 많이 쌓인 뒤에 한꺼번에 보시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재물을 모으기도 전에 수재나 화재, 혹은 도적을 당하거나 혹은 갑자기 목숨을 마치는 때도 있다.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보시하지 못한다. 그도 저와 같은 것이다.



옛 판화의 세계

희천 스님이 거북의 꿈을 꾸다 희천몽구(希遷夢龜)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의 스님인 희천이 육조대사와 같이 한 마리의 거북의 등에 올라타고 깊은 못을 헤엄치는 꿈을 꾸고 있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희천(希遷:700-790) 스님은 속성은 진 씨이며, 광동성 단주출신으로 조계에 이르러 육조 혜능에게 득도했으나, 혜능 스님이 입적하자 정원행사 스님에게 배우고 인가를 받았으며, 형산(衡山)의 남사(南寺)에 가서 동쪽의 석상(石上)에 암자를 짓고 형상 좌선했으며 석두 화상(石頭和尚)이라고 불렸다. 광덕 2년(764) 문인들의 청에 응해 중풍을 선양했으며, 약산유엄(藥山惟嚴)에게 법을 부촉하고 정원 6년(790) 세수 91세로 입적했다. 저서에 〈참동계(參同契)〉 <초암가(草庵歌)〉가 있으며, 그의 사상은 조동종(曹洞宗)의 시초가 된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느 날 홀연히 꿈에 육조대사와 같이 한 마리의 거북의 등에 올라타고 깊은 못에서 헤엄치는 꿈을 꾸었다. 꿈을 깨고 나서 이를 점치기를 '거북은 신령한 동물이니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못은 자성의 바다를 상징하는 것이다. 나와 스승이 신령한 지혜위에 올라타고 자성의 바다에 노닐지 오래다'라고 하고 마침내 형산의 남사를 찾아갔다. 이 절의 동쪽에 바위가 있었는데 형상이 대와 같았다. 그는 마침내 그 바위 위에 암자를 짓고 그곳에 주석했다. 상당법어에서 말하기를 '나의 법문은 선대의 부처님에게서 전수받은 것이다. 나는 선정 정진을 논하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지견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마음이 곧 부처다. 부처와 중생, 보리와 번뇌는 이름은 달라도



고려판희천몽구(高麗版希遷夢龜圖) 판화(木版) 1673년 간행(刊行) 반곡(半郭) 27.2×18.0cm

바탕은 하나다. 너희들은 알지이다. 자기의 심령은 그 바탕이 단견과 상견을 떠난 것이며 자성은 때 묻지도 청정하지도 않으며 당연히 원만하다. 이것은 범부와 성인 나란히 같다. 그 응용은 무방하다. 마음의 의식작용에서 벗어나면 삼매 육도에 오직 자신의 마음만이 나타난다. 그것은 물속에 비친 달이나 거울에 비친 형상과 같으니 거기에 어찌 생멸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알 수 있으면 갖추어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석두 스님의 법어는 일체 진리가 본래부터 완성돼 있다는 자성, 불성에 대한 자각이며, 인간의 마음이란 묵묵히 안으로 관찰하면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묵조선(默照禪)의 선경을 잘 표현하고 있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화백불량장)



시가 있는 도량

돌미륵

피이 뱃종 뱃종,
피이 뱃종.
산새들 요란히 우짖는 소리에
돌에서 막 깨어난 미륵불.
슬며시 세상 문 닫히고 밖으로 한 발짝
발을 내 딛다가
추위로 씩씩하게 굳어 다시 동면에 든다.
극락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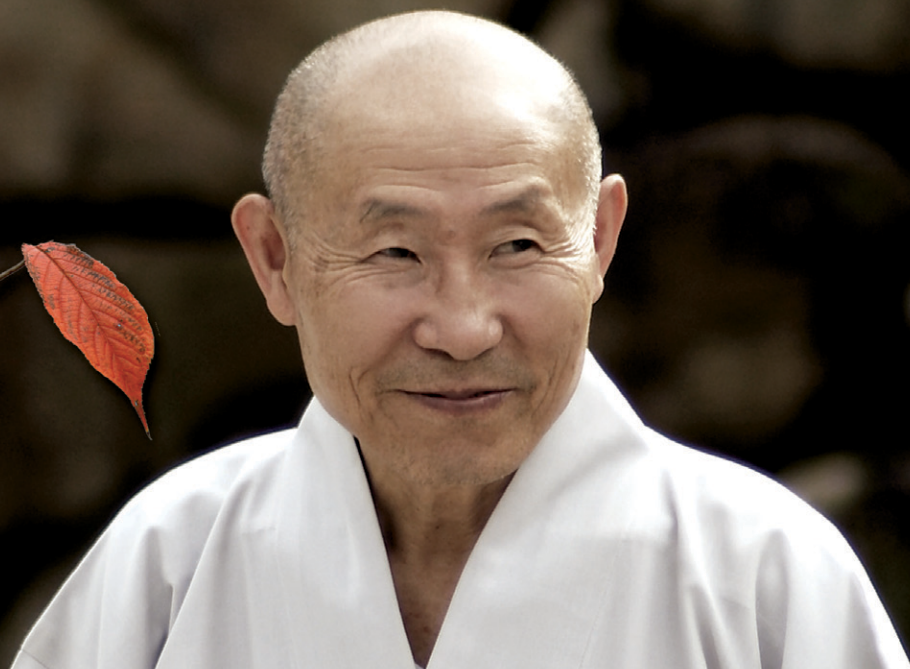
가릴 것, 숨길 것 없어
벗어버린 맨 몸으로 사는 세상,
쫓고 배고픈 중생들로 가득한
이승의 사계절은 여름도 겨울이다.
얼음 녹아 돌돌돌 계속물은 흐르는데
산비탈 진달래꽃 활짝 웃고 있는데..

-오세영(신작 시집 <바람의 그림자>)

쉬고, 쉬고 또 쉬고

무여선사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선禪 이야기

각박한 시대를 어루만지고 고달픈 현대인을 위로하는 무여선사의 친절하고도 명쾌한 선禪의 길잡이



새로운사람들

한국불교의 중심에서 찬란히 빛나는 화두명상법- 우리는 그것을 화두선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화두선은 8만4천 번뇌의 뿌리를 단박에 끊어 버리는 호쾌함과 목숨을 건 수행자의 치열한 삶으로 일반인들은 선뜻 집어들기 쉽지 않다. 그러나 무여선사의 "쉬고, 쉬고, 또 쉬고"를 따라가다 보면 번잡스럽고 복잡한 현대사회가 갑자기 고요에 빠져든다.

스님은 우리들에게 이른다. "소풍을 떠나듯 설레는 마음으로 화두를 챙기되 고요히 쉬어라!" 하루 하루 연속되는 복잡한 일상에서 쉬고, 쉬고 또 쉬어가면 머지않아 진정한 행복에 이른다. 우리들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우리들은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수 없다.



무여선사지음
본문308쪽 정장제책 장가3,000원

* 글은 수필처럼 날렵하고 편집은 여백의 허허로움을 절실려 중임감이 전혀 없다. 초심자에게는 초심자에게 맞는 울림으로, 경험자에게는 경험자에게 맞는 울림으로, 경지에 오른 수행자에게는 또 그 그곳에 맞는 울림으로 다가온다. - 법보신문

*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두려움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이 책은 정통선의 경계를 지켜내면서 재가불자들의 참선수행을 이끌어준다. - 불교신문

* 이 책은 선 수행과정에서 가질만한 의문을 두루 짚어주

고 쉽고도 간결한 것이 특징이다. 참선문헌에서부터 구함 수행자까지 볼 수 있는 간소한 지침서로서 손색이 없다. - 현대불교신문

* 책 제목의 '쉬'는 무슨 뜻일까? 스님은 "화두에 진정한 의정(疑情)을 일으켜서 온갖 번뇌 망상을 쉬게 하는 일"이라며 "그렇게 쉬고, 또 쉬면 참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몸과 마음이 자유자재하게 된다"고 말한다. - 조선일보

* 스님은 중·고생 시절 수학여행을 앞두고 그랬던 것처럼 내 마음을 찾아 떠나는 여행인 참선수행도 설레는 기분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한다. - 한국경제